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동행하심의 차이

(갈4:12~20)

17.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동행하심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동행하심의 차이!

여러분, 일본에 오사카라고 하는 도시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오사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에 항구도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의 제3의 항구도시가 바로 고베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베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무역항인데, 방직산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산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유적지가 많습니다.
사적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적지가 몇 백 년, 천 년 넘게 세월이 지난 가운데 세워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의 기술들을 일본이 가지고 있고 상업화 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 그런 첨단기술 다 투여가 돼서 이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14초 만에 고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100km직경 그러니까 200km가 되겠지요? 14초

만에 완전히 초토화돼버리고 맙니다.
1995년1월17날 고베 대지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11년3월 동일본 대지진이 9.0의 지진이었는데, 이게 그 동일본 대지진 전 일본 지진역사상 최고규모의 7.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17일에 일어난 이 지진은 몇 번 작은 지진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으로 강타를 하게 되는데, 이 최후의 지진이 지속된 시간이 14초에요.
근데 이 14초 만에 고베 시 직경 200km 안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버리고 맙니다.
14초 동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전후좌우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진동이 일어난 진폭이 앞뒤로 90cm, 좌우로 74cm, 1미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로 또 진동이 일어났는데 상하의 진폭이 40cm가 안됩니다, 39.6cm.
그러니까 1미터 안 되는 진폭으로 앞뒤좌우로 움직였습니다, 14초 동안.
그리고 40cm가 채 안 되는 진폭이 상하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3의 항구도시 고베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 버리고 말아요, 14초 만에.
2014년 대한민국의 예산이 357조 7천억이에요.
근데 1995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고베 시에서 일어난 피해액이 14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4년 예산의 5/2가량 되는 거예요.
140조가 넘는 피해액을 낳은 겁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섬뜩함이 느껴지느냐 하면, 고베 시에 많은 유적지들도 있었고 최첨단 기술이 투여된 산업시설들 기간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지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14초만 흔들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그 고베 도시에, 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에 걸쳐서 사적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동안을 내려다보시고, 최첨단의 투여된 기간산업과 산업시설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제3의 항구도시로 발전하는 고베도시를 보고 계셨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14초면 다 끝나버릴 거예요, 다 끝나버릴 거.
근데 천 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보고 계시고 온갖 기술력이 총동원 돼서 건설되는 그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허락하심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심.
허락하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심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허락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걸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허락하심의 예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떡 조각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는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허락하시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가롯 유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을 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도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 받으면 안돼요.
허락이라는 게 뭐에요?
허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허락 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허락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계획을 딱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회장님이 참모들이 창의적으로 세운 계획을 검토하듯이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스스로 계획한 것을 딱 받아 드시고, '아! 이거 생각도 못했다. 네 인생을 계획할 때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 사업이 참 좋고 이 사업이 잘되면 네 인생이 참 멋있게 되겠구나! 아, 난 미처 생각 못했는데, 좋아! 네가 생각한 이 계획대로 내가 허락해 줄께, 능력을 주고 여건을 몰아주고 잘되게 해줄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좋은 생각이다, 네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멋지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미처 생각 못했네, 좋아! 승인! 허락!'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허락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을 허락받지 않습니까? 허락받지 말고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대로 죽었어야 돼요.
근데 허락 받으면서, 허락받은 기간 동안에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기간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허락받은 기간은.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동행하심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허락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이거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 되잖아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14초 동안이면 허물어질 것들을 천 년이 넘게 쌓아오던 그 사적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노력,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이 투자된 산업시설들과 기관시설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 다 허락하십니다.
보고 계시다가 1995년 1월 17일 날, 14초 흔드십니다.
앞뒤로 90cm, 좌우로 75cm 그리고 상하로 40cm 흔들어서 14초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너 왜 아무 말도 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일 권세도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그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는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앞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하늘은 지금도 우리 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니까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지진을 볼 때 주님도 지진을 보십니다.

우리가 풍랑을 볼 때 주님도 풍랑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는 풍랑을 보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풍랑이 뇌에 자극이 되고 인식이 되면서 뇌로부터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물을 퍼낸다든지 방향키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근데 주님은 그 풍랑을 똑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아예 주님께서는 풍랑 만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풍랑 만나게 될 당신의 육신이 있는 그 배에서 마음이 떠나 하늘과 연결이 된 상태로 지금 배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나님아버지 품에 마음이 안겨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육체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육체가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물러서, 육체의 놓여 진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이 안 된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는 상황에 마음이 반응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업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몸이 놓여 져 있는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아버지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버지하나님께로 가니까 그곳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니까 마음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마음이 가득~ 차고 부풀어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라이브 연결.
생방송처럼 라이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삶,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이 땅에 갇혀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전부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보고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생겨서, 서점에 나가서 사업을 잘되게 하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7가지 습관을 읽고, 거기서 배워 가지고 이대로

하고, 이렇게 다 폐쇄돼 버린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져 버린 상태.
근데, 책보고 잘 됐어요.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고 그대로 했더니 어! 기사회생으로 기업이 살아나고 막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업이 안 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몸이 만나고 있는 사업의 그 안 되는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연결되었을 때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행하시는 겁니다.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서 잘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베 시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14초 만에 흔들어 다 허물어버리실 걸 아시면서 그걸 내려다보시면서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통일교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커집니까?
제가 배운 신앙과 신학에 근거될 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유명하고 큰 대형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기독교가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형 건물이 아니면 마음에 만족할 수 없는 목사님과 당회와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대형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대형 예배당이.
살아 있는 하나님은 폐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건물이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조감도대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잠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아니면 전혀 열등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그 교회의 목사님과 당회와 교인들이 생각한 그 예배당의 건물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너희 형편으로는 지금 10억짜리도 못 짓는데, 200억짜리의 빌딩을 계획하다니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러실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야!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희가 믿음이 좋고, 계획이 훌

륭하네!'
그래서 허락해 버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허락을 받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행하심의 연합을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뭐 온 나라 안이 돈이 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만에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되면 하나님이 나를 괜찮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좋아합니다, 돈 잘 벌린다고.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초 흔들 겁니다, 14초.
그러면 끝나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땅을 떠나야 돼요.
마음이 땅을 떠나려면 어떻게 떠납니까?
오늘, 다시 태어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그래요.
왜 새삼스럽게, 이미 교인된 사람들에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기초를 삼고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교인들이.
율법주의나 세상의 초등학문, 즉 자기계발이나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
이 모든 학문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식에 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연결이 끊겨 버립니다.
아~무리 학박사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먼저, 내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경제학 박사들 조심하세요.
함부로 경제문제를 진단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맨날 못사는 사람은 끝까지 못살고 있잖아요.
경제학 박사님들 다 모아 놓으면 경제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수술하셔야 돼요.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째고 꿰매놓을 뿐이지, 붙이시는 거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 알면서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연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떨어졌습니까?
마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과 지금 라이브로 연결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이유와 근거와 방향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겠다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전부 이 땅에다가 쌓은 거예요, 자기 삶을. 14초면 끝날 삶을.

고베지진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진사건은 없느냐?
있어요, 일본에 또 있어요.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동대지진이 일어나는 그 한 가운데 동경제국 호텔이 있었어요, 1968년에 그 건물이 헐려요.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신문은 당연히 그 재앙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동경제국 호텔도 무너졌을 것으로 알고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1923년 그 지진이 발생할 때 그 호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0명이 모여서 축하연을 베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14만 명이 죽는 그러한 참혹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축하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건물이 나무에 달린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은 흔들림을 잠깐 느꼈다가, 긴장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하연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나와 보니까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동경제국 호텔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 황실에서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국호텔의 건축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2년이 넘도록 건물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에 2년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 있는가 내진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생각해낸 게, 하루는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메밀 소바 도시락 있잖아요? 그 메밀 소바 도시락을 하늘에 닿게끔 쌓아 갖고 가는데, 이게 흔들거리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연상을 하느냐 하면, 동경제국 호텔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전함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년이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데 도시락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착안해 가지고, 이 땅을 지진이 일어나는 땅을 떠나서, 바다 위에 떠있는 전함처럼 제국호텔을 짓자.
그래갖고 철제빔을 2000개가 넘도록 땅에다가 때려 박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상했던 건축비의 두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21년에, 그 철제빔 위에다가 손으로 만든 벽돌,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린 화산돌을 가지고 기초를 쌓으면서 호텔을 지었는데, 그 사람의 건축 방법에 대해서 모두가 불만족했습니다.
2년 뒤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납니다.
68년에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새로운 건물 안에,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 설계가의 설계경향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게 하심으로써 이루려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경제국호텔이 땅에서 떠나서 바다 위에 떠있었기 때문에 지진에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라이브로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떠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매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칭기즈칸, 알렉산더.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라는 것은, 14초 만에 흔들려 무너져 내린 고베 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늘에 매달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땅에서 뜬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매이는 바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걸 가진 바가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로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걱정되는 상황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죽고 또 죽을 때에,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일어나는 삶이 됨으로써 이 땅에서 떠있는 삶을 구축하고, 영원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잖아요? 땅 위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초면 무너질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한 시도 잊지 않아서,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마음이 죽음으로써,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내 삶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으로부터 떠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